



1992 I I
성도의 벗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표지 설명:

미국의 대학부 로데오 경기 최고 우승자인 제인 데이비스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로데오 프로 선수가 되라는 인력을 받았으나, 브라질로 선교 사업을 떠났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어떤 것보다 이 사업을 버꾸지 않을 겁니다." "숙련되도록 배움", 10쪽, 사진 촬영, 브라이언 케이 켈리

어린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을 존중하고 아낌", 56쪽, 창조 사진 촬영, 톰 로젠탈/슈퍼스타크 주식회사.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 구원-가족의 일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2
 "그녀는 멋진 아가씨야, 하지만..." 도로시 레비 날슨8
 교만을 위한 자리는 없음 시 리처드 치데스터16
 작은 황금 콩 펠릭스 알베르토 마르티네즈 데퀴르24
 이노시의 책 설린 마이크 손더스32
 복음과 조각: 제2회 국제 예술 경연 대회 글렌 엠 레오나드36
 제네바-하나됨과 다양성 페트리아 켈리42

청소년란

숙련되도록 배움 마이크 제이콥스10
 질의 응답: 어떻게 경전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까?26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1
 방문 교육 메시지: 삶을 즐김25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더블류 유진 헨슨 회장65
 교회 및 지역 소식66

어린이란

히버 제이 그랜트 켈렌 리스50
 친구가 친구에게 : 헬베시오 마틴스 장로52
 심심 풀이55
 함께 나누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을 존중하고 아낌 버지니아 피어스56
 더욱 값진 교훈 설리 지 핀린슨58
 친구 사귀기 : 라울 아퀴노 곤잘레스 마빈 케이 가드너61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집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벨슨, 델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디에이,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 제320권, 제29권, 제11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92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흥 무 광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2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 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2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2991 320
Printed in Korea 11/92

리아호나가 내게 이야기함

저는 오 레 리아호나(사모아어)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이 쓰신 "나의 명예의 전당"을 읽고 마치 그분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달 이 잡지에 메시지와 기사를 실어 주시는 여러분과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리아호나가 리하이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 레 리아호나는 저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 왔습니다. 리하이의 가족들이 신앙을 갖고 있을 때마다 리아호나가 움직였던 것처럼 오 레 리아호나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저는 안내자요 동반자가 되어 매달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 레 리아호나를 언제나 애타게 기다립니다.

알레니 사울로 푸아티마우
사모아 우폴루 서 스테이크
사타플라 와드

작은 기적

저희는 아르헨티나인 가족으로 3년 동안 스위스에서 살고 있는 교회 회원입니다. 저희는 매달 레뜨와르(프랑스어)와 지역 소식이 잘 나온 리아호나(스페인어)를 받아 봅니다.

저는 1963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봉사했던 지역은 마르 델 플라타 지부로, 저는 그곳에서 훌륭한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리아호나를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살살이 읽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봉사하던 지부 회원 중 공보 책임자로 봉사하던 자매님 한 분의 성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6년 동안이나 그 자매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마르타 마크리" 자매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지부(현재는 스테이크가 되었음) 주사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16,0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매님은 거의 18년 동안 비활동으로 있다가 교회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저와 친했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리아호나를 받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우리는 친하게 지낼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이렇게 특별한 잡지를 출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겔 안헬 마테아시
스위스 제네바 스테이크
제네바 락 와드

영적인 양식

매호마다 특별한 영적 경험을 전해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탭블리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세계 자매들의 역할과 업적과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1992년 3월호는 가장 훌륭했습니다.

매 장마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새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마치 성신이 직접 제 마음에 메시지를 보내 주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마치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실한 삶의 경험이 담긴 이 잡지를 계속 출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훌륭한 개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있음을 압으로써 저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카렌 제이 보랄
필리핀 마리카나 스테이크
마리카나 제2와드



구원 - 가족의 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영

원한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은 가족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그들의 가족을 양육하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성스러운 책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성적인 문란, 동성애, 마약성 약물 남용, 알코올 중독, 문화 예술의 파괴, 외설 서적, 폭력 등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바로 가정에서의 실패, 즉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원리와 의식을 무시하는 것을 나타내는 징후입니다.

일부 부모들이 행복과 성공을 위해 주님이 주신 원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온 세상의 많은 가족들이 커다란 압박과 정신적인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실현하기 어려운 “자아 완성”을 추구하기 위해 가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혹을 받아 왔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일을 뒤로 미루기를 꺼려하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충실함이란 쌍방이 서로 주고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가 시간을 건전하고 훌륭한 것을 추구하며 보낼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인간주의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가족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하는 진지한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묘사되는 가정의 모습과 사랑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과 모순되는 철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되는 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전혀 죄가 되지 않는 듯이 들리는 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음과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데 “변화있는 생활 방식”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유산을 정당화시키는 말로 “선택의 자유”라는 말이 사용되며, 혼외의 육체적인 관계를 정당화시키는 데 “의미있는 관계”나 “자기 달성”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더 불안하게 되고, 이혼과 우울증과 자살도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가족들에게 영원한 가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가장 효과적인 곳입니다. 가정 생활이 굳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기초를 둔 곳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은 그리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기본 원리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과 안정과 행복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목표와 욕망과 행위에 있어서 의로운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성약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성약을 명예롭게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결혼 서약에 충실하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평안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주님은 간음을 분명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충실함이란 쌍방이 서로 주고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가정 생활은 훗날 자녀들이 즐거운 추억과 정다운 사귀의 시절로 회상할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억제하고 자제하는 태도는 결혼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는 자신의 감정 뿐만 아니라 말도 자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통해 가족간의 유대가 강화될 것입니다. 생각과 열망과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결국은 같은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논쟁과 문제가 있을 때, 인도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주님과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경전에 의지하십시오.

영적인 성장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에 대해 무절제하게 강조함으로써 이기심과 고립을 낳고 있습니다. 두 인격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예나 다름없이 주님의 표준입니다.(창세기 2:24 참조)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부부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표는 자아의 발전은 물론 조화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봉사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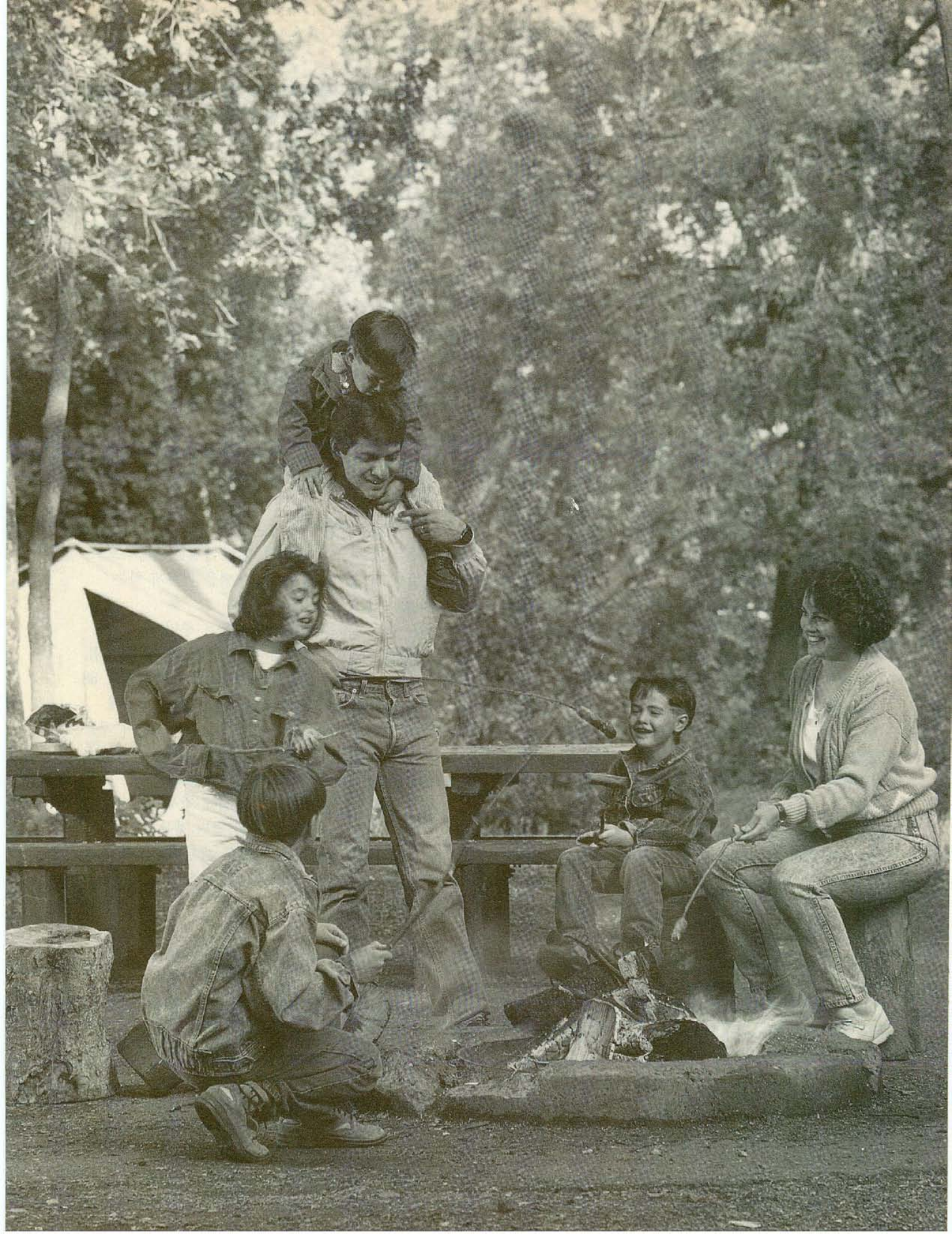
둘째,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과 주님이 주신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도록 기르는 일이 오늘날의 세상에서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이를 수 있는 일이며,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꼭 필요한 존재이며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이러한 것을 종종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부모들이 채워 주어야 할 부분이며 주로 어머니가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영원한 견지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고,



부모는 자녀들이 침례와 확인과 신권 의식 및 성전 결혼과 같은 복음의 의식을 받도록 준비시켜야만 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기 위해 자신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해서 인도를 구하며 그리고 그들이 받고 있는 축복에 대해 감사를 드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도와 준 기억이 납니다.

자녀들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으며, 또한 배워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 흠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이 갖고 있는 것을 탐내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집에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그러는 중에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위엄과 자존심을 키운다는 것을 가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일의 즐거움과 또한 일을 잘 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여가 시간을 건전하고 훌륭한 것을 추구하며 보낼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오랫동안 보는 것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일하고 오락을 즐기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가정의 밤을 일주일에 한번씩 가져서, 이 시간에 복음 원리에 대해 토론하고, 오락을 즐기며 일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촌극, 피아노 둘레에 모여 노래 부르기, 게임, 특별 다과 등도 즐기고 가족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행함으로써 가족은 사랑과 자부심과 전통과 강건함과 충실함으로 마치 쇠사슬처럼 튼튼하게 결속될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에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경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매일 영적인 예배 모임을 갖는 것 또한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이 모임에서 경전 읽기, 찬송가 부르기, 가족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셋째, 부모들은 자녀들이 복음의 의식을 받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가정에서 받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영적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침례와 확인과 신권 의식 및 성전 결혼과 같은 복음의 의식을 받도록 준비시켜야만 합니다. 부모는 또한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존중하고 명예롭게 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생에 대한 목표를 갖고, 무엇보다도 그 목표를 성실하게 추구해 나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율법과 복음의 의식에 순종함으로써만 얻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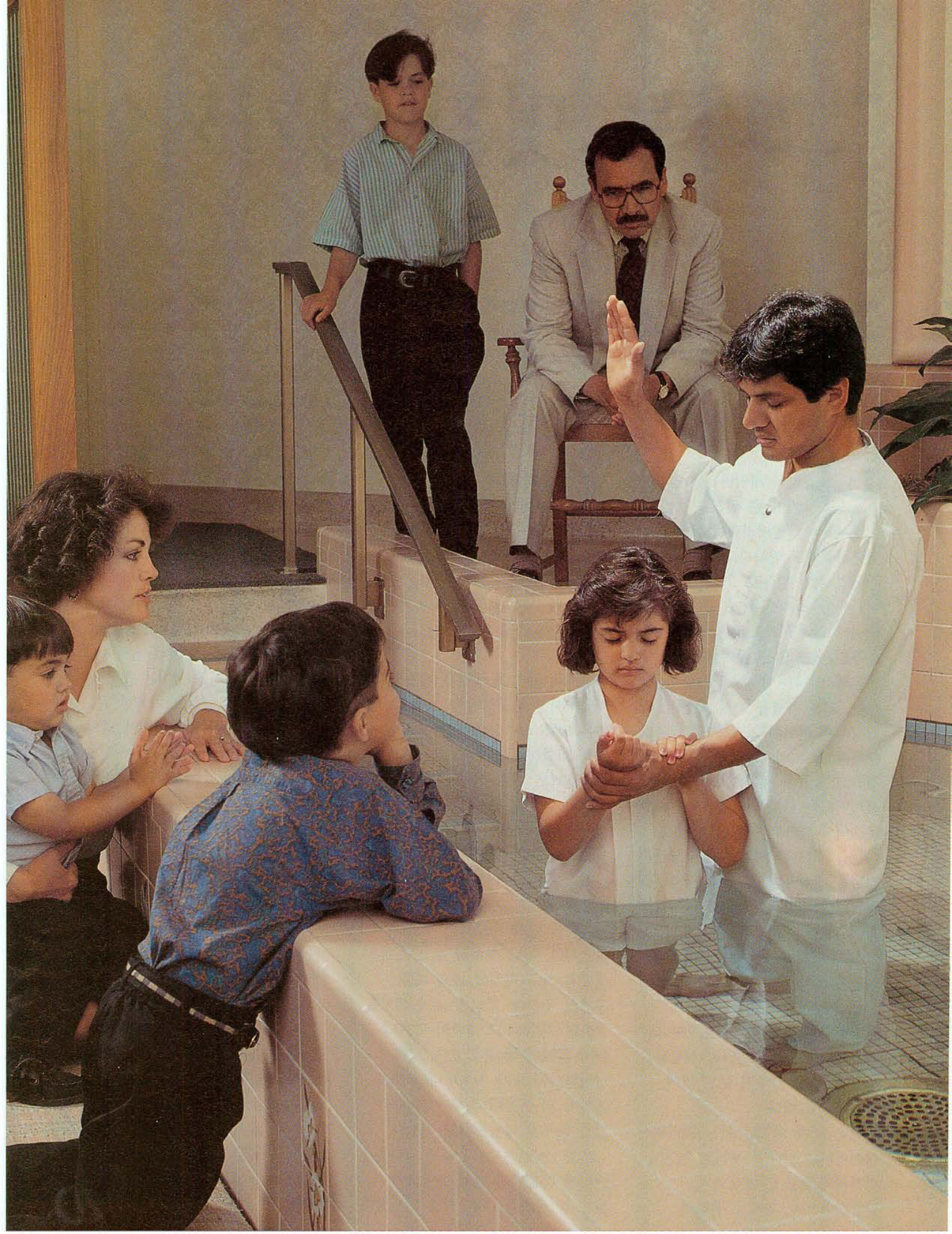
부모 자신이 구원의 의식을 받고 성전 결혼의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은 그들 자신의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모범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정을 이루는 부모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교리와 성약 88:119)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초라함의 정도에 관계없이 가정에는 사랑과 행복과 평화와 기쁨이 깃들 것입니다. 자녀들은 의와 진리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가정 생활의 기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가끔 훌륭한 가정과 분리된 참된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달콤한 영향과 친밀한 관계의 사귀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구원은 가족의 일이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가족을 양육하는 책임을 맡기셨다.
2.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과 안정과 행복을 확고히 해줄 기본적인 원리를 제정해 주셨다.
 - 부부는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서로 섬겨야 한다.
 - 자녀를 사랑과 주님이 주신 교훈으로 양육해야 한다.
 - 부모들은 자녀들이 복음의 의식을 받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그녀는 멋진 아가씨야,

다행스럽게도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상적인 여성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셨다. 시어머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조건없이 사랑해 주셨다. 내가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랬다.

도로시 레비 닐슨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약간 키가 큰 편이 금발머리였던 나와 결혼하겠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장난기 섞인 말투로 “멋진 아가씨야, 하지만 키가 좀 작은 편이지 않니?”라고 대답하셨다.

우리는 그 일을 돌이켜 보면서 웃곤했다. 나는 항상 최고 학점을 받는, 고른 치열을 가진 아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자리를 넘겨 주어야 할 여성으로서는 못마땅한 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어머니는 나의 남편을 위해 소와 우유에서 만드는 크림을 팔았고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양들과 양털을 팔았으며, 그 아들은 점차로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어 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상적인 여성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셨다. 시어머니는 나를 받아들였으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조건없이 사랑해 주셨다. 내가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랬다.

결혼 전에 가졌던 어느 파티에서 시어머니는 나에게 우리의 결혼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실제로 우리의

결혼을 방해하시는 일 같은 것은 없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훌륭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도록 우리 집에 정기적으로 뜨거운 국냄비를 날라오시는 일도 없었으며, 남편을 위해 치과 진료 예약을 해주시는 일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내 생일을 항상 기억하시진 못하셨지만 그 보다 더 좋은 일을 해주셨다. 친절하게도 나를 기억해 주셨으며, 그 무엇보다도 나를 신뢰하셨고 내가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셨다.

시어머니는 내가 우리 집을 어떻게 꾸미고 가구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관해 충고하신 적도 없으시다. 아니 오히려 우리 소파의 색깔과 가구 배치에 대해 자주 칭찬해 주셨다. 한번은 내가 의자를 샀는데 나중에 그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내가 시어머니의 의자 색깔이 더 마음에 든다면 자신의 것과 바꾸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또한 시어머니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 요청하지 않는 한 충고를 주신 적도 없으셨다.

한번은 시어머니에게 자녀를 몇 명을 두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에 대해 여쭙어 본적이 있는데, 그때 시어머니는 내게 남편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받는 영감이 가장 좋은 지침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시어머니는 내게 결코 다른 자녀들이 구입해 드린 새 피아노나 자동차 또는 카펫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다.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오래 전에 나는 일지였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서 가족 중 다른 누군가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결코 들은 적이 없다고 기록한 적도 있다. 따라서 나는 시어머니가 나나 우리 가족의 비밀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셨으며, 우리의 음악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농담을 듣고 웃어 주셨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인정해 주셨다.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거나 자신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정한 횡수만큼 방문해 주거나 전화해 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해서 방문하고자 할 때 방문하였다.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시고 미망인이 되어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실 때, 내가 가면 문에서 “오, 다시 와주어

하지만...”

고맙다.”라고 반갑게 맞아 주시곤 하셨다. 또는 휴일에 시어머니를 초대했을 때, 이미 가족 중 다른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으셨으면, “참 상냥도 하지! 너희들은 나를 무척 행복하게 해주는구나!”라고 말씀해 주셨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당신의 옷을 다려 드리거나 집을 칠해드리거나

잔디를 깎아드리고 당신의 일을 대신해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도록 하지도 않으셨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자립한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으며 나도 역시 시어머니의 독립성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시어머니덕으로 예기치 않게 찾아가서 담벼락을 씻어 드리거나

창고를 청소하거나 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료품점엘 가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옛날에 나오미가 룯에게 간곡히 얘기했던 것처럼 “애들에게 가봐라 아이들에겐 네가 옆에 있어야 돼”라고 하시던가 또는 “왜 나와 함께 갈려고 하니?”(룯기 1: 11~12 참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니까요”라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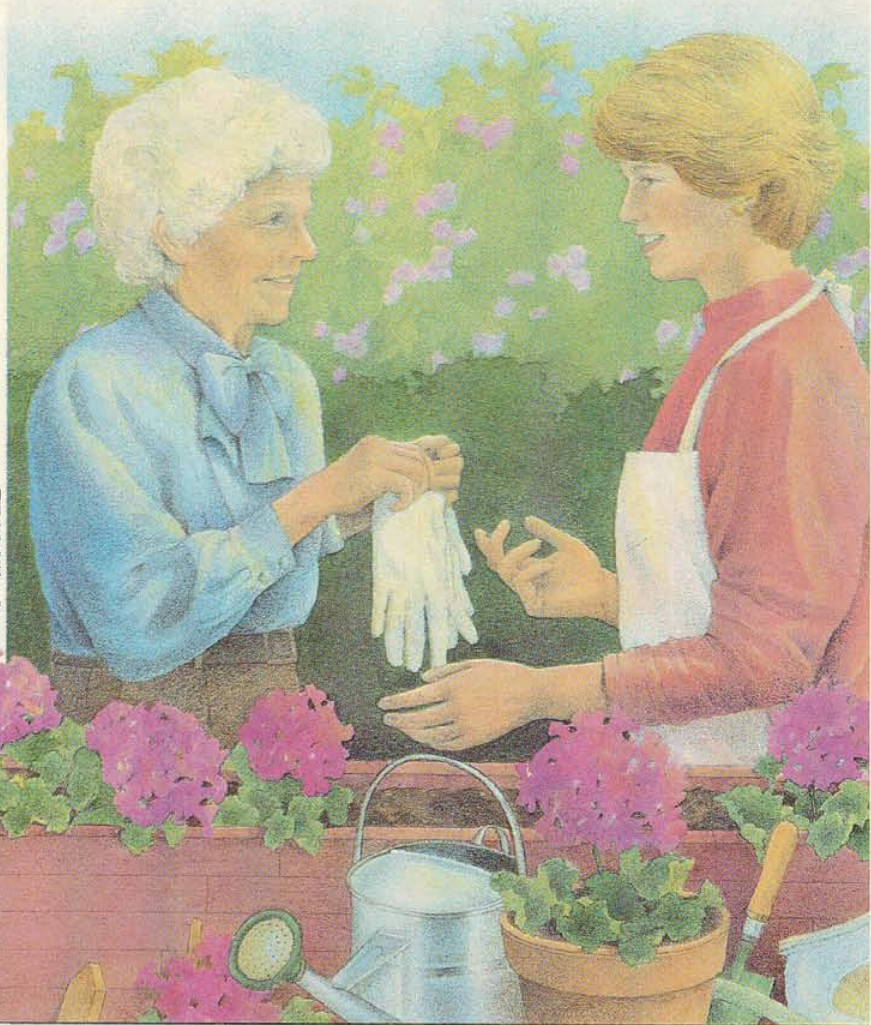
어느 날 나는 시어머니께서 가꾸시는 화분에 제라늄을 심으려고 갔었는데, 일할 때 끼는 장갑이 있느냐고 여쭙어 보자 잠시 어디론가 가시더니 하얀 예식용 장갑 한 벌을 갖고 오셨다.

나는 “전 낡은 정원용 장갑이 필요해요. 이건 너무 좋은 거 같아요”라고 사양했다.

시어머니는 “네 손에 너무 좋은 건 없어”라고 대답하셨다.

그것이 시어머니께서 내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었다. 꽃을 심는 동안 시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시어머니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옛날에 룯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룯기 1: 16)라고 말한 것처럼 말씀드릴 수 있다. □





보리이의 케이 켈리 사진 촬영: 데이비스 가족

숙련되도록 배움



마이크 제이콥스

로데오 슈트가 벌칙 열리면서 사납고 미친듯이 경충거리는 말이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른다. 말 등 위에는 카우보이가 완벽한 자세로 그 야생 동물이 몸을 비틀고 뒤통스 데에 따라 자신의 몸을 유연하게 맞추면서 앉아 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육중한 동물이 한쪽으로 쓰러지면서 그 몸무게로 기수의 왼발을 짓누르자 군중들은 발꿈치를 들고 숨이 막힌 듯 서 있다.

제인 데이비스는 땅바닥에서 일어나 슈트 쪽으로 절름거리며 걸어 올라갔다. 장화를 벗자 발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뼈가 부러져서 시합을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제인은 낙담하지 않았다.

한 달이 채 못되어 그는 다시 말 등에 올라타고 미합중국내 대학에서 제일 뛰어난 로데오 선수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현재 제인은 브라질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이 선교 사업의 경험을 그 어떤 것,

심지어는 전국 프로 로데오 챔피언 자리와도 바꾸지 않을거예요."라고 말한다.

대학 최고의 카우보이

제인 데이비스는 1990년 6월에 몬타나 주, 보즈먼에서 열린 전국 대학 최종 로데오 경기에서 그 해의 최고 카우보이 상을 수상했다. 그는 남 아이다호 대학의 일학년생에 불과했지만 단지 몇 번 야생마를 타보고 몇 번인가의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그런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었다. 그는 걸을 수 있기 전부터 훈련을 받았는데 그의 아버지인 손 데이비스(세 번씩 로데오 경기 세계 챔피언을 지냈음)가 그를 로데오 경기에 데려갔을 때부터였다.

제인은 세 살 때 여덟 살에서 열 두 살까지의 카우보이들이 겨루는 로데오에 나가게 해달라고 고집하였다. 그러나 시합에 나가기엔 너무 어렸으므로 단지 그의 말타는 기술만을 보여 주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는 겁도 없이

.....

제인 데이비스는
브라질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로데오를 포기했다.





어머니 지나와 아버지 손과 함께 한 제인. 그는 세 번씩이나 로део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었던 아버지에게서 로데오에 관한 귀중한 기술들을 배웠다. 양친 모두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신권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쳤다.



모자와 장화와 밧줄과 박차를 차고 약간 성난 송아지에 올라탔다. 제인은 그가 생각나는 거라곤 다음 순간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떨어지기 전에 규정된 제한 시간을 거의 다 채웠다.

그는 불과 다섯 살일 때 다음 로део 경기에 나갔는데 이때는 조랑말이 경중 뛰어 그를 떨어뜨렸으나 3위에 입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후에 제인은 수많은 로део 경기에서 놀랄만큼 많은 안장과 혁대 장식과 트로피와 상금 등을 탔다. 그러한 성공은 열심히 자신을 훈련시켰던 결과였다.

조금의 두려움

제인은 매일 부모님의 목장에서 윗몸 일으키기 80번과 턱걸이 20번 그리고 엎드려 몸통 들어 올리기를 400번씩 했다. 그 외에도 그는 밧줄로 10마리에서 20마리 가량의 송아지들을 잡는 연습을 하고 또 경기를 위해 한 주에 한번씩 실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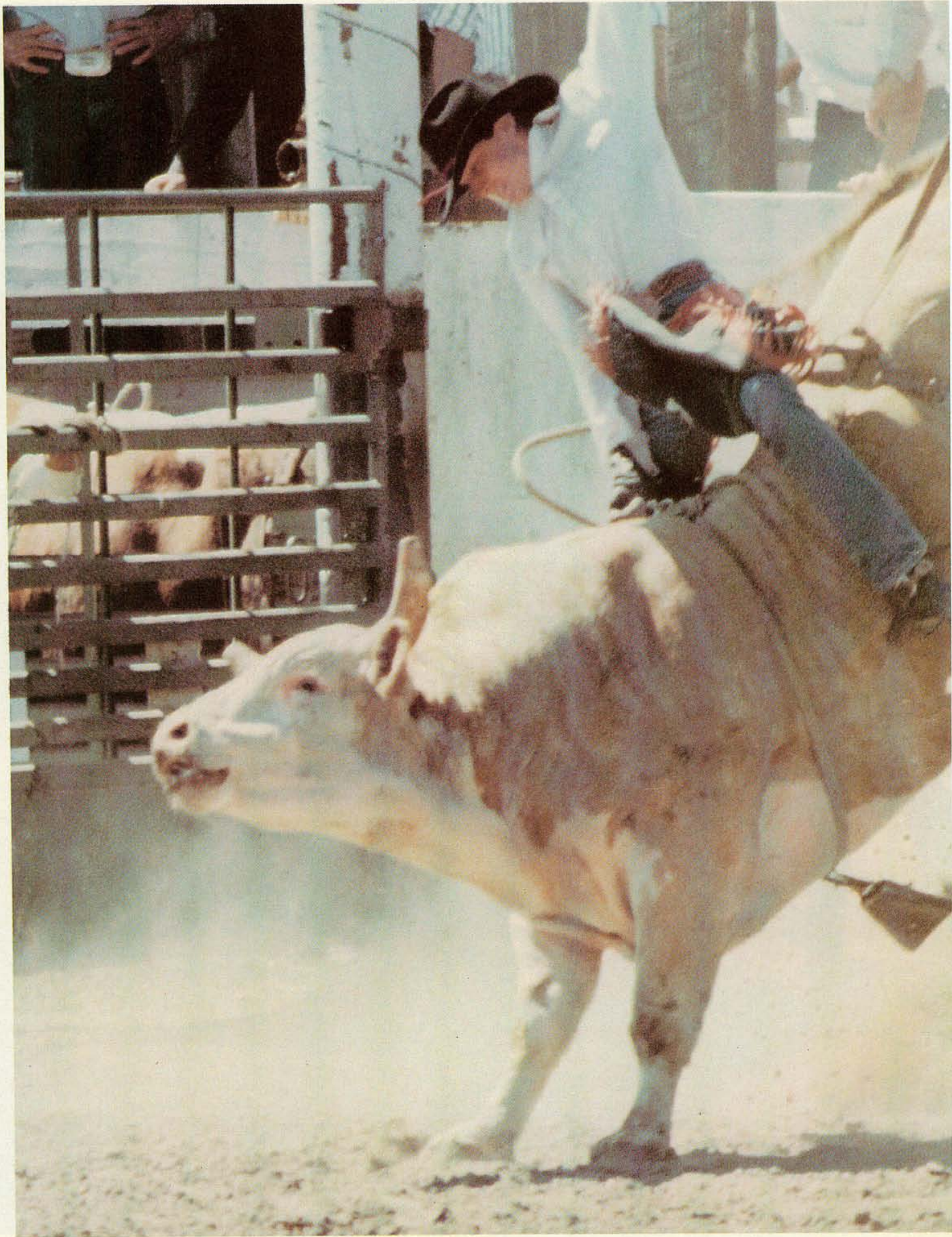
했다. 또한 경기 전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요청했다. 제인은 “이 축복이 저를 수많은 경우에 부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또 부상을 당하더라도 놀라울 만큼 빨리 회복되었어요.”라고 말한다.

제인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큰 축복이 되어 왔다고 덧붙인다. “술을 마시고 약물을 복용하는 다른 카우보이들은 잠시 동안은 훌륭할지 모르나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제인이 성공한 또 다른 이유는 도전에 직면하는 자세를 배워 왔기 때문이었다. 어느 로део 경기에서 학생 선수들을 모두 내어던진 황소를 타야 했다. 그러나 단지 13살에 불과했던 제인은 그 황소에 올라탔으며 다섯 번을 시도해서 세 번을 올라탔다. 제인은 “로део 경기에서 정말로 두려웠던 적은 한번도 기억나지 않아요. 조금의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너무 두려워하는 것은 좋지 않죠. 조금쯤 두렵다면 더 잘









계획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두렵다면 통제할 수가 없겠죠.”라고 말한다.

..... 선교사로 떠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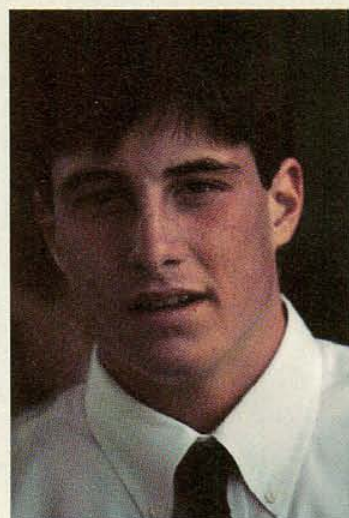
제인이 직면해야 했던 가장 어려운 결정 중의 하나는 선교 사업을 나갈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는 일이었다. 미국내의 모든 대학이 그를 데려가려고 했다. 그는 항상 선교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제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축복들 중 얼마라도 갚고자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제인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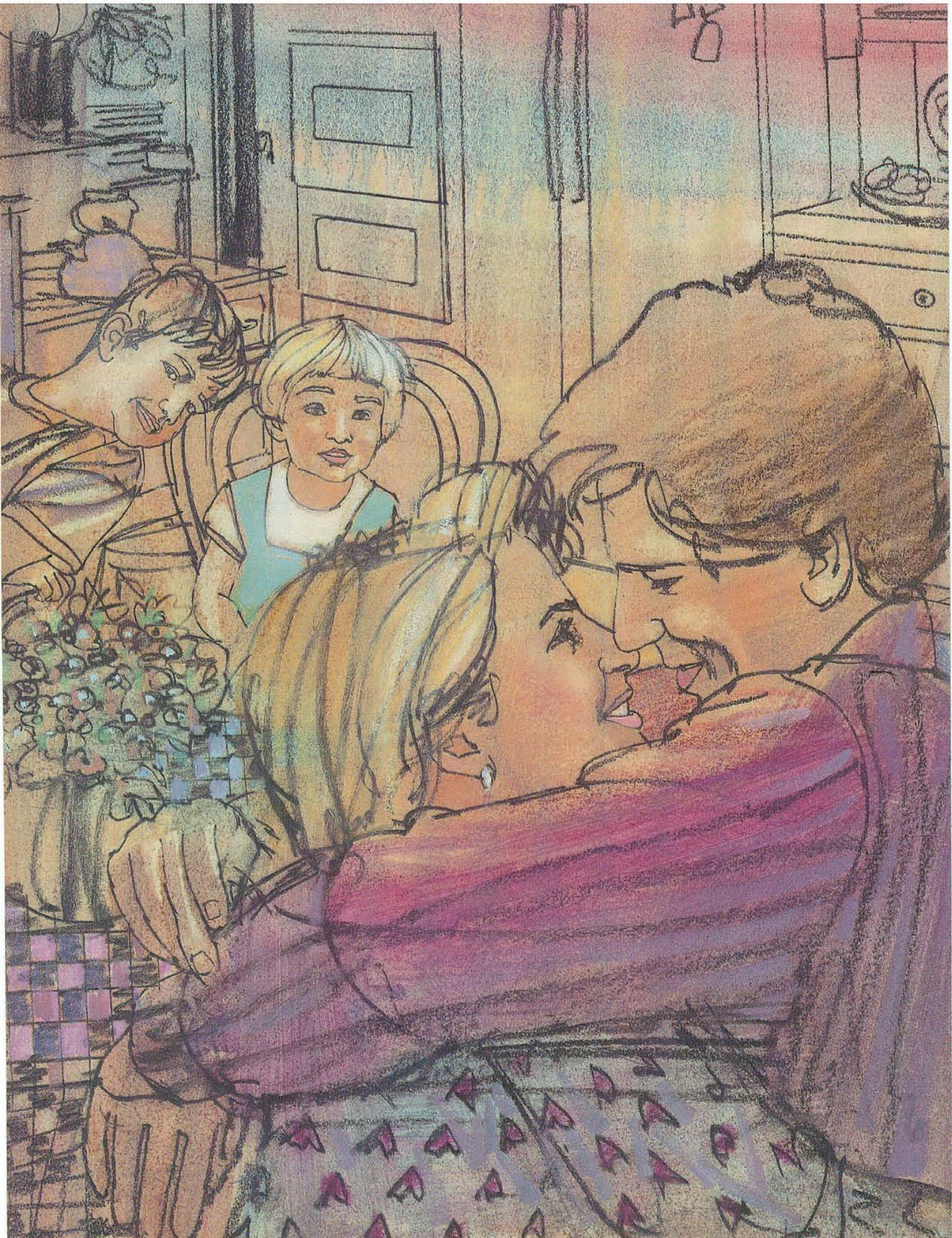
제인은 선교 사업중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또 많이 변화되었어요. 전 한여름 내내 로테오 경기 때마다 세 번씩 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처럼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일은 제게 매우 유익합니다.”

제인은 지금까지 수천 마리의 야생마를 닳으며 수천 마리의 송아지를 밧줄로 잡았다. 로테오는 그에게 쉬운 일이 되었다. 그러나 로테오 경기에서 가장 좋은 일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아버지는 경기 때마다 항상 옆에 있었고 아들을 지켜 보며 그가 안전하도록 도와 주었다.

브라질에서 제인의 선교 사업은 쉽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제인은 매일 향상하고 있다. 그리고 선교 사업을 하면서 겪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항상 옆에 계시며 그를 지켜 보시고 그가 안전하도록 도와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



제인은 전국 대학 챔피언이 된 후 로테오를 계속하라는 압력에 직면했다. 그는 “그러나 저는 주님이 제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축복들 중 얼마라도 갚고자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교만을

위한 자리는 없음

시 리차드 치테스터

겸손은 행복한 인생과 행복한 결혼 생활의 주된 요소이다.

그들은 내게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혼을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었다.

이제까지 그들은 다른 곳에서 결혼 생활에 대한 상담을 받아 왔었다. 그러나 그러한 상담은 순전히 세상적인 종류의 것이었으며 그들의 관계는 더 좋아지지 않고 더욱 나빠져만 갔다. 그들은 겸손하게 되어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는 대신 자신을 더욱 아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찮은 일들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자신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더욱 합리화시키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경쟁적인 세상이 요구하는 행동과 태도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서로 그들은 서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부부는 성전에 참석한 후 스스로 겸손해졌으며 그들이 잃었다고 생각한 사랑을 다시 발견했다.

흔히 강압하고 비난하고 통제하며 명령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탓하고 벌주려고 하였으며 상대방이 변화하도록 강요했다.

나는 그들과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고자 노력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 개인과 부부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모두 주로 영적인 것이며 또 이러한 문제들은 복음 원리를 잘 적용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배우자의 행동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나와 처음 만난 후 이 부부는 함께 성전에 갔다. 해의 왕국실에서 그들은 각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배우자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무엇을 잘못 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알려 주시도록 조용히 간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문을 여시어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 그들이 받았던 계시로 말미암아 그들은 겸손해졌으며

은유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바로 성전 곁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성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그렇게 거리낌없고 명백하게 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한없이 자비로우신 것을 알고 놀랐다.

이제 그들의 생활은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회개하는 쪽으로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상대방을 탓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지, 주님의 방법은 아니란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경전을 읽지 않고 또 정규적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자만심의 징후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가 그토록 자신에게만 몰두했고 이기적이었다는 사실과 또 서로의 상반되는 이기심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조차도 깨뜨려버렸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했으며, 또한 그들의 행동이 자녀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부부가 겸손하게 되어 그들이
없었다고 생각한 사랑을 다시 찾는
과정을 지켜 보는 일은 정말
감격적이었다.

하나가 됨

결혼 생활에는 부부간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두며, 자신은
두번째가 되겠다는 결심이 따라야
한다. 이 말은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을 두번째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혼 생활의
목표는 하나가 되어 한 조로서
협력하여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날 주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되풀이하여
말씀하신다.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룸이
마땅하니,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9:16;
창세기 2:24 참조)

주님은 우리가 성전에서 결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하나가 될 것까지도 원하신다. 그런
일체감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성격상의 약점을 보고
주님을 믿는 신앙과 회개를 통해
그것들을 없앨 수 있을 만큼
겸손해져야 한다.

자신을 알

우리는 결혼하는 즉시 자신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알기 시작한다. 젊은 귀환

선교사였을 때의 나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도 웃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당시 나는 자신이 매우
영적이고 그리스도 같으며, 또한
끈기있고 참을성 있으며 친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결혼했다! 그리고
여전히 얼마나 많이 배울 필요가
있는지를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첫번째
아이를 통해 나는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내 캐시와의 관계에서도 나는
무의식 중에 “자신을 변호하라.”,
“인내할 필요가 없다.”, “포기하는
것은 약하다는 증거다.”라는 세상의
가르침을 믿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다른 뺨도 돌려 대며
참으로 살아 있는 그리스도 같은
특성을 가진 캐시의 모범을 통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해
훨씬 더 적게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들 중에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처하는 경험은 자신의
성품을 발전시키고 좀더 그리스와
같이 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결혼 생활과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훌륭한 부모와 배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가정에서 받는 생활의

압력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해
좀더 배우게 되며 또한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정한 이기주의와의 만남이며
예절과 변화의 필요성과의 만남이고
또, 마음이 상해도 용서하며 다른
사람의 기분에 대해 관대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때때로
고통을 주게 되는 이유를 이해할
필요성과의 만남입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처럼
사생활에서도 잘 행동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위선을 줄이고 더욱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배울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엔사인, 1972년 2월호,
7쪽)

교만의 위험한 지배력

우리는 결혼 생활과 부모로서의
역할에서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화를 내거나
자신의 불행에 대해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 또는 환경을 탓하고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한다면
그것은 교만의 위험한 지배력
아래에 놓이는 것이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교만에 대해 말씀하신 중요한
연설에서 “교만은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죄이며 큰 악입니다... 교만은
시온의 큰 장애물입니다.”(“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7~8쪽)라고 말씀했다.

나는 결혼 상담가로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들 중에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이야말로 좀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교만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 출판된 결혼 관계 서적에서는 결혼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한 항목에서 결코 겸손을 수위에 두지 않는다.

벤슨 대관장님은 교만의 중심적인 양상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적대감이라고 하였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하려 하며 하나님이나 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는 온유하고 마음을 낮추기보다는 교만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영의 영향력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는 마음을 강박하게 하며 영의 인도를 무시하며,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통해 배움을 얻는 대신 자신의 진실된 모습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만다. 자신의 약점을 고치며 성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싸우거나 달아나는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교만하게 만드는지 알게 된다면 놀랄 것이다. 우리는 최고가 되고 일류가 되며 성공한 사람처럼 차려입도록 하는 등등의 방법을

배운다. 이 세상의 많은 것이 경쟁을 유도하며, 비교와 경쟁은 많은 사람들을 교만으로 이끈다. 벤슨 대관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의 지성과 의견, 행실, 부, 재능 또는 기타 세상적인 평가 기준을 내세움으로써 모든 사람을 적으로”(“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5쪽)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해지는 것을 배운다.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다. 이 영적인 암은 남의 결점을 찾고 험담하고, 비난하며 불평과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과 질투, 탐심, 배은망덕한 행동과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시기심 등 참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연민이 강하며 논쟁을 즐기고 세상적인 성취욕과 계속되는 적대감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는 태도와 기꺼이 죄를 고백하고 버리지 않는 자세를 갖게 된다.

아마 결혼 생활과 가족 관계 내에서보다 이런 문제들이 더 잘 나타나는 곳은 없을 것이다.

벤슨 대관장님은 “우리는 교만을 극복하여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으며, 겸손이야말로 교만의 치료제라고 강조하셨다. 이 밖에도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존중하며, 권고와 징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며,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선교 사업을 행하고 좀더 자주 성전에 들어가고 죄를 고백하고 버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며 또 주님의 뜻에 따르며, 우리 생활에서 주님을 앞세움으로써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겸손의 본질**이다.

겸손하게 될

물론은 “온유하며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함이라.”(모로나이사 7:44)라고 가르쳤다. 온유하다는 것은 참을성있고 유순하다는 뜻이며 겸손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교만이나 오만이 없다는 뜻이다. 이같이 겸손한 마음을 지닐 때 사람들은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엘마는 “하나님 앞에서 늘 (너희가) 부족함을 깨닫도록 하라.”(엘마서 38:14)라고 말했다. 이 같은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참다운 변화를 겪고 또한 결혼 생활 및 가족이 단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내 앞에 이를진대 내가 저들의 연약함을 보이리라.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은 내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자 모두에게는 흡족할지니, 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
(이더서 12:27)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나 자신보다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겸손하여져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한다면,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흡족한 사랑을 내려 주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에게 온 마음을 바쳐(히라멘서 3:35 참조),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크신 사랑을 입도록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때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도움과 힘을 주는 권세이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영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겸손은 참된 영성의 주요소이며 행복한 삶과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초이다.

영적인 병에 대한 영적인 치료제

우리는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교만 때문에 당혹스럽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큰 노력을 요하지 않는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흔히 외면의 행동만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인위적인 기교만을 찾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방법에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육신의 권세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외면의 행동은 기교와 기술을 통해 변화될 수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문제도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며 따라서 영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자신을 치료하는 데에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속죄나 복음의 제일 원리와 의식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몫은 주님을 믿는 신앙과 회개와 실제로 성신의 정화해 주는 권세를 받아들임으로써 주어지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인도와 견책과 위안과 희망을 얻기 위해 주님의 영을 의지하며 또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다. 자신의 힘과 지혜나 선함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상처받기 쉬우며, 필멸의 상태 때문에 때때로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위축되어 자신이 가치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절망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을 믿는 것처럼 육신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오 인간의 보잘것 없음이 어떠하냐”(히라멘서 12:7)라는 말씀은 모욕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과 하나님의 권세를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힘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 주시는 구세주의 권세를 믿는



그녀는 자신의 소망과 신뢰를 주님께 두는 것을 통해 세상적인 교만을 극복함으로써 양자와 좀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신앙을 가져야 하며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깨끗케 해주시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의 가장 불결한 요소인 교만과 이기심을 씻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족쇄들에서 풀리지 않는다면 결국 영과 진리에 자신을 맡기기를 거절하고 자신과의 투쟁만을 하게 된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경은 선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가르친다.(모로나아서 7:12 참조) 그것은 우리가 되고자 하고 변화되어야 할 것에 대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 같은데 실제로는 많은 말일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는 단지 두번째 요소만을 적용한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나는 내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도록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가장 미약한 노력에도 기꺼이 도와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노력을 원하신다.

회개 - 늘 필요한 일

주님은 초기의 성도들에게 이 세대 사람에게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외치지 말라고 거듭하여 명하셨다.(교리와 성약 6:9 참조) 왜 그러셨을까?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늘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어떤 언어권에서는 회개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형벌”이라는 라틴어 해석 때문이다. 그러나 회개어 해석은 정신 또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며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면 단지 고통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거나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경고하셨다.(교리와 성약 19:17 참조) 우리는 지금 겸손하게 되거나 아니면 언젠가 영적인 감옥에서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겪음으로써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해질 수 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전에 죄를 깨끗이 씻어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다면 그 순간부터 주님께 의해 치료받기

시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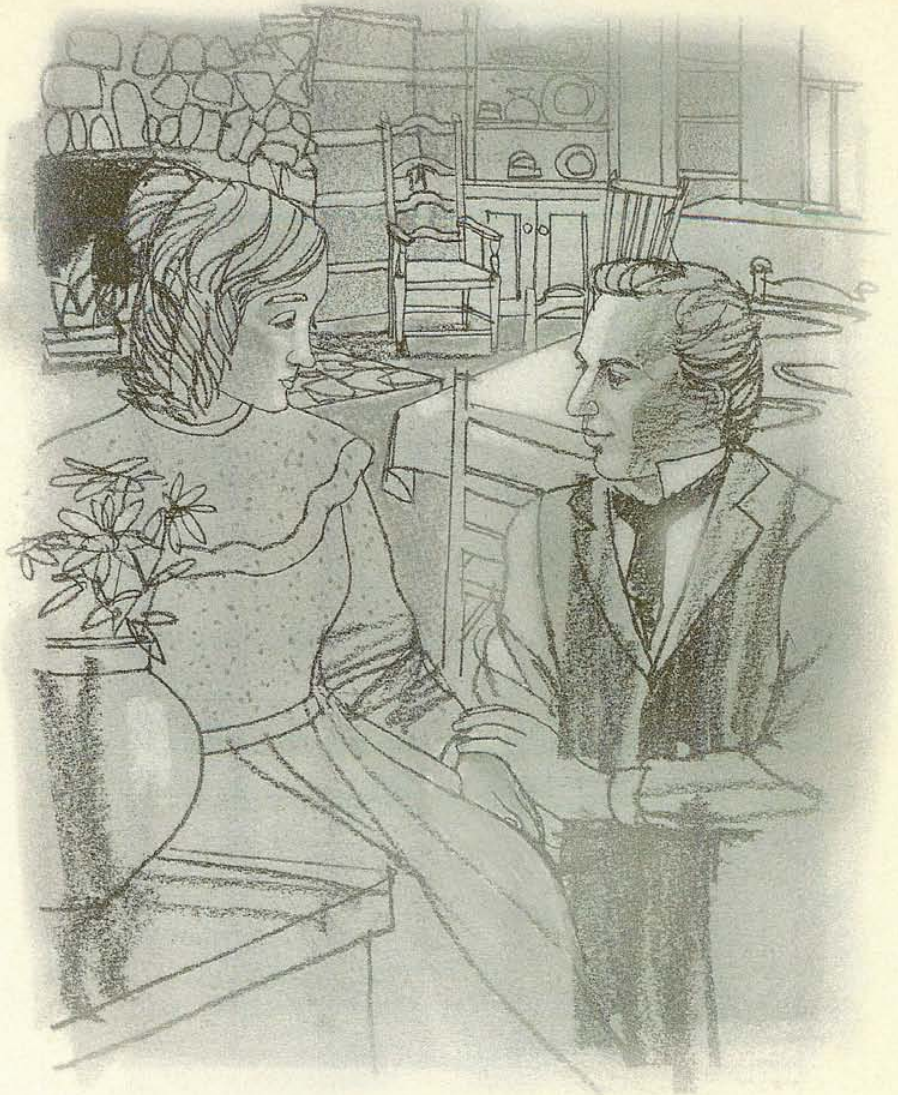
우리가 계속적으로 회개하며
기꺼이 영을 동반한다면 불완전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나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할지라도 더욱
관대하게 보아 줄 수 있다. 또한
용서하고 차이를 극복하며 회개하고
잘못을 고칠 수 있는 힘을 더 많이
얻게 된다.

깨끗케 해주는 성신의 권세

진실로 겸손해져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보이며
회개하고 영을 구한다는 사람은 더
이상 밖으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또는 조용히 고통을 감수하거나
양자 택일을 해야 하는 무력한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자신의
생활과 관계를 진실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성신이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평온한 희망, 즉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세를 통해
자신의 모든 약점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평화로운 확신을 얻게 된다!

복음의 제일 원리와 의식을
지키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악한
욕망과 약점이 정화되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매리온 지
롭니 부대관장은 “인간은 성신의
은사에서 나오는 빛과 권능을
실제로 받고 경험하여 거듭
나게”(“그리스도의 빛”,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된다고 말씀하셨다.



예언자 요셉은 아내 엠마와 다름으로써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엠마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판의 번역을 계속할 수 없었다.

문제를 분명하게 봄

이전에 내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양자와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 아이를 좀더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문제 중 몇 가지가 그 아이의
행동에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순수하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소년은 약간의 장애를 지닌
아이였다. 신체적인 어려움 외에도
그의 친어머니가 그의 신체
발육상의 필요사항을 채워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장애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양모는 더 큰 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교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였을 때 그녀의 부모는
부끄러운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으며 자녀들에게서도 완벽함을
요구하였다. 그 가족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과 또 그런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관해 몹시
염려하였다. 그들은 물질주의와 신분
및 위신 등에 대한 교만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심판하고

비판하였다.

그녀는 입양한 아이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외부에 미칠 자신의 인상을 두려워했으며 그것이 자신의 이미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리라는 염려스러움이 아이에게로 표출되었다.

우리는 함께 몰몬경의 몇 구절을 읽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이 종교의 외적인 면은 부지런히 수행하였으나 마음속의 불순함을 보지는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떤 점에서 그녀는 교회에서 활동적이었으나 복음의 중요한 몇 가지 면에서는 활동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자매는 자신이 세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음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교만했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힘에 의지했다는 사실이었다.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면서 그녀는 그 아이를 적절하게 키우는 데 있어 자신이나 자신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치유하고 구속해 주시는 권세를 통해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개를 통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경전을 단지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구하였으며, 영을 구하고 주님에게 소망과 신뢰를 두기 시작했다.

이 자매는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완전해지려면 아직 멀었고 양자를 다루는 데에도 문제를 갖고 있으나, 지금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는

자세가 전과는 다르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님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요셉 스미스는 겸손을 배웠음

요셉 스미스는 겸손하게 되는 것과 주님의 영을 받는 것 사이의 관계를 훌륭하게 배웠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이렇게 말한다.

“요셉 형제는 번역하려 할 때가끔씩...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번역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깨닫곤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의 마음이 너무 많이 세상적인 것에 얽매어 있어서 번역을 계속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처하면 그는 밖으로 나가 기도하였으며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겸손하게 되면 번역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얼마나 엄격하시며 또 계시를 주시기 전에 주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의롭게 되기를 요구하시는지 압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실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셉이 번역을 계속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무언가 집안 일이 잘못되어 그는 화를 냈다. 그의 아내 엠마가 어떤 일을 저질렀던 것이었다. 올리버와 내가 이층으로 올라갔고, 요셉도 뒤따라 올라와 번역을 계속하려 했으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한 문장도 번역할 수 없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과수원 쪽으로 가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한 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엠마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층으로 올라와 번역을 무리없이 했다. 그는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비 에이치 로버츠, 교회사 요해, 1: 130~131)

우리도 요셉처럼 대가를 치러야 함

우리는 종종 대가를 치르지 않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교만한 상태로 세상의 그릇된 가치에 집착하면서도 가정에서 평화를 얻고 마음에 주님의 영을 지니고자 한다.

복음대로 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반대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뜨리는 데 치르는 대가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로나이의 다음 말씀보다 더 사랑스러운 권고나 더 큰 위로나 더 희망적인 교리는 없을 것이다.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 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요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지 못하리로다.”(모로나이사서 10:32) □

작은 황금 콩



펠릭스 알베르토 마르티네즈 데퀴르

나와 아내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되고 비이기적인 봉사를 베푸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정의 밤 시간에 우리는 “엘 프리조리토 데 오로”, 즉 “작은 황금 콩”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아이들 각자에게 뚜껑이 달린 플라스틱 그릇을 나누어 주고 자발적으로 가족들에게 봉사를 베풀 때마다 그릇에 작은 콩을 하나씩 넣어 주겠다고 밤 시간에 그 작은 콩들의 수를 세어서 그때 가장 많은 콩을 가진 사람에게 특별한 상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는 놀랄 만했다! 우리 집엔 빗자루가 넉넉하지도 못했는데 모두가 집안을 쓸고 싶어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 내내 장난감이 굴러다니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 우리 그 주 동안에 나누어 줄 콩이 충분히 있거나 할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주에 아내의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 전체에 깁스를 해야 했다. 의사는 아내에게 첫 삼일 동안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며 다리를 들어올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것은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이들이 봉사의 아름다운 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게 되었는지 알게 해주었다.

아내가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고 싶어했다. 아내가 자리를 잡으려 하자 막내 베티토가 달려가 다리를 엮을 의자를 가져 왔다. 그 다음엔 담요를 가져다 의자 위에 놓은 후 다리를 그 담요 위에 올려 주었다.

아내는 베티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이 훌륭한 봉사의 대가로 찬장에서 콩 두개를 꺼내가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티토는 찬장으로 가는 대신에 제 엄마를 쳐다보며 “엄마, 콩은 필요없어요. 엄마를 무척 사랑하니까 한 일이에요.”라고 말했다. □

삶을 즐김

말 일성도 어머니와 성인이 된 그녀의 딸은 웃으면서 인생에서 서로가 속해 있는 시기의 이점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그것을 “소망의 교환”이라고 부른다. 어머니는 “너처럼 민첩하고 싶구나.”라고 말하며 딸은 “엄마만큼 현명해지고 싶어요.”라고 답한다. 어머니가 “네겐 많은 기회가 있어.”라고 계속하면 딸은 “엄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라고 말한다.

이 여성들은 얼마나 현명한가! 서로 각자가 속해 있는 인생의 시기에서 받는 축복을 감사하도록 도와 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 시기의 한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시기의 이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전도서 3:1)라는 진리를 깨닫는다.

각자가 속한 시기에서 기쁨을 누림

인생의 각 시기마다 보상이 있다. 이십대의 자매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갖는 것이 무겁고 짐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또한 자녀를 키우거나 지식과 기술을 넓히는 것에 대해 기쁨을 가질 수도 있다. 중년 여성은 가정과 일과 신체적인 면에서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경험을 통한 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더 나이든 여성들은 기동력을 잃거나 사랑하는 이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는 결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로리 앤더슨 그림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여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평가해 보고 자신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을 헤아려 보도록 권한다.

인생에서 여러분이 속한 시기의 축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모든 목적을 이를 때가 있나니

인생의 모든 시기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린 두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성전 추천서 접전을 하면서 스테이크 부장에게 성전에 좀더 자주 참석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소요 시간과 거리와 경비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만큼 자주 참석할 수가 없었다. 스테이크 부장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매님이 성전을 사랑하고 또 더 자주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사정이 허락할 때에만 가되, 다른 중요한 많은 면에서 봉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자매님이

바라는 만큼 자주 참석할 수 있는 때가 올거예요.”

모든 여성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표를 찾고 따를 수 있다. 그들은 인생의 다양한 시기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우선 순위를 세우고 복음 원리를 좇을 수 있는 것이다. 충실한 여성은 주님의 손길이 항상 그녀를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6)

여러분이 속한 시기에서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라, 내일이여”

말일성도 시인인 엠마 로우 데인 자매는 “어떤 단계에서도 그때의 모든 것들이 자신을 발전시켜 주었”노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두려움 없이 신앙 속에서” 기뻐한다. 그녀는 다음의 시에서 이러한 평온함을 표현했다.

그러므로 오라, 내일이여
앞으로 올 일이
좋은 것일지 나쁜 것일지
안다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네
배우고 보고 행함으로써
굳건해진 신앙으로
우리는 평화롭게 말하네
내일이여, 오라

인생에서 부딪치는 도전들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어떻게 경전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까?

경전은 다소 지루한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왜 경전이 그토록 훌륭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재미있게 경전을 읽을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요?

다음 대답은 교회 정책의 공식적인 설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

다 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제님도 지루한 느낌을 떨쳐버리고 경전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잡지를 읽거나 텔레비전 쇼를 보기 위해서라면 특별히 어떤 준비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세상적인 면에 더욱 근접해 있는 것들로 대부분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에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읽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경전을 읽고 있음을 상기하십시오. 주님께서 형제님이 지금 당장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경전을 읽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형제님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영아 형제님에게 평안한 느낌과 경전을 이해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들은 놓치기 쉬운 것이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경전을 읽으려 한다면 형제님은 그러한 느낌들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경전에서 자신을 찾으십시오. 삭개오의 이야기(누가복음 19: 2~6)에서 뽕나무에 오른 키작은 그 남자가 실제로 형제님은 아닙니까? 형제님은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십니까? 탕자의 이야기(누가복음 15: 11~32)에서 형제님은 “선한” 형제입니까? 형제님도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방탕한 형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니파이일서 19장 23절의 “경전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권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질문하십시오. 형제님의 마음 한

구석에서 생기는 의문은 바로 형제님이 탐험하도록 부름받은 길을 가도록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누가 이것을 기록하거나 말씀했는가? 그는 누구에게 이야기하였는가? 그는 왜 그 이야기를 하였는가? 이것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형제님이 읽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경전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서로 이야기할 때, 영적인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20절과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경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모님에게 여쭙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형제님은 놀랄만큼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방법을 바꾸어가면서 읽으십시오.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한 주제나 특별한 인물에 대해 읽으십시오. 한 구절에 있는 각주를 모두 찾아 보십시오. 낱말이 언제나 형제님의 생각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기도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피약벌 아래에서 가파른 산을 힘들게 오르는 동안에는 등산이 왜 좋은 것인지 의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상에 올라 골짜기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노라면 등산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의 대답 :

저는 2년 전에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물론경을 처음 읽으면서 저는 그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면서 직면하는 상황들에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경전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경전을 읽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경전을 읽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경전을 읽지 않을 때는 제가 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왕국과 영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오네 에이치 강로
라투, 20
통가
누구 알로파
스테이크
아파 지부

저는 경전을 읽을 때, 모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책 속의 내용과 같은 경험을 하려고 해봅니다. 이렇게 해보면 모든 것이 훨씬 더 재미있어지며 경전의 가르침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클라디아 알바레스 엔, 15세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테이크
코멜라 지부

저는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무엇을 읽게 될까? 이 경전을 읽음으로써 나는 얼마나 복음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과 같이 호기심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경전을 읽음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게 되며 옛 선지자들의 지혜도 배우게 됩니다.

김 희진, 19세
한국

부산 스테이크, 울산 지부

저는 방과 후에 집에 돌아오면 바로 경전을 읽습니다. 식사나 숙제를 하고 난 뒤에 읽으려고 하면 너무 피곤해서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특별히 인상깊거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성구를 기록해 두었다가, 찾아보기도 하고 더 연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경전 공부들 통해 많은 축복과 평안을 느낍니다.



나쓰코 미꾸모
일본
구마모토 지방부
노베오카 지부

저는 신학 연구원 대학부 수업에서 경전을 읽고 상고하고 그것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때때로 같은 성구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 성구를 비교하고, 나이가 더 많은 분들께 제가 읽은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더 많은 통찰력을 얻습니다. 저는 물론경에 나오는 사건들 속의 등장 인물이 되어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경험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리하이가 자녀들에게 생명 나무의 시현에 대해 설명해 줄 때 제 자신이 그 설명을 듣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라고 상상함으로써 가장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경전을 탐구하면서 위안을 찾습니다.

저에게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밤에 바깥에 나가는 것보다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경전은 제 삶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실바니아 도
나시멘토
사가스, 23세
브라질
아라카주 스테이크
아탈라이아 와드

저는 여러 해 동안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갖게 된 어느 날 저는 물론경을 읽으라는 벤슨 대관장님의 권고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꽂이에서 물론경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 경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경전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며, 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경전에서 자문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가 의기 소침해 있을 때 위안을 주시기 위해 경전을 주셨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길버트 에프
제니사, 19세
필리핀
잠보앙가 스테이크
테투안 와드

저는 경전을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저희 감독님의 권고를 기억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제가 경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사 요리스 16세
아르헨티나
레지스텐샤 스테이크 제1와드

경전을 읽고,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하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련에 두려움없이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속여서 경전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을 약화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성신의 도움을 간구하는 한편 경전을 통해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한복음 5:39)라고 하신 구세주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마릴로우 바레오,
15세
필리핀
투구에가라오
스테이크
제4와드

저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참석하면서 경전을 깊이있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옛 선지자들이 복음을 위해 했던 일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왕국을 세우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복음이 참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잭퀼라인 카롤리나
마자리에고스
카스텔라노스, 18세
파테말라
우타틀란 스테이크

저는 경전을 읽고 공부하면서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더욱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전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기깝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전에 대한 이해력을 간구하는 외에도 저는 다음을 실천해 보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찾아 보십시오.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경전을 형제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매우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친구들과 경전에 대해 토론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 경전에 대해 간증을 얻게 되면 친구들과 그 간증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간증을 나누면서 얻는 기쁨은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님은 경전을 더욱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루, 야-루 17세
대만

카오시웅 스테이크, 신잉 지부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에 우리가 예언자들의 경험에 관한 기사들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에게 갖고 계신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전을 읽음으로써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보화인 영원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지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버지니아 빌라 에프, 25세

볼리비아

코차밤바 유니버시타드 스테이크

콜론 와드

저는 경전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읽음으로써 얼마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면 경전을 읽음으로써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디오니샤 아파자, 14세

볼리비아

엘 알토 사텔리테 스테이크,

빌라 돌로레스 와드

표준 경전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장은 너무 길어서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개인적인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에 참석함으로써 우리는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는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빅토르 올리바레스

브이, 19세

칠레

라 시스테르나

스테이크

그란자 제2와드

저는 열 세 살에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에는 경전을 즐겨 읽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경전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어쩌다 한번씩 읽는 정도였습니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문학 서적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에 저는 두 명의 회원으로부터 경전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가에 관한 간증을 듣고, 배워야 하는 저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꼈습니니다. 저는 성신이 저의 이해를 돕게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으며, 후에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경전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경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개인적인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라킴 헤레라, 19세

에콰도로

이바라 지방부

엘 에지도 지부

만일 우리에게 경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을까요? 경전에서 빛과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 채 암흑 속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경전이 지루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읽기 시작해 보니 영의 도움을 얻어 저는 경전을 계속 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경전 공부를 함으로써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경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보내신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 해야 하는 모든 일의 처방이자 안내자입니다.

엘리아나 디아스 세베로

브라질

산타마리아 지방부,

트란크레도 네베스 지부

형제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구를 적어 보십시오. 종이에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어떤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 성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육신에 중요한 것처럼 경전은 영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님이 마음으로 그것을 섭취하게 되면 다시는 잊지 않게 되며, 어떤 것은 마음을 돋우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영의 자극을 받아 겸손해지게 하거나 굳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릴리네 버말레,

21세

프랑스

랑구에독 지방부

카르카소에 지부

저는 약 2년 전에 침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전이 지루하게 느껴졌으며,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저는 시간을 잘 조정하고 관리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그 시간에는 오직 경전만

읽었습니다. 또 일정 시간 내에
 몰몬경을 읽는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경전에 기록된 사건들
 속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읽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때때로 어떤
 성구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감독님이나 다른 분들과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경전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경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잉그리드 엠 하이님, 17세

파라과이

페르난도 데 라 모라 스테이크

산 로렌조 와드

만일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간구한다면, 경전이 지루하다는
 느낌은 사라질 것입니다. 경전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경전은 우리가
 달콤한 경험 뿐만 아니라 쓴 경험도
 해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29:39
 참조) 성신은 경전을 통해 우리가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호세 그레고리오

두키

콜럼비아

모랄레스, 23세

쿠쿠타 지방부

산안토니오 지방부

저는 지금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낙담시키려고 가장

노력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몰몬경을 읽으려고 하다가
 잠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밤에 잠자리에서 읽으려고 했기
 때문에 잠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 시간을 정해서
 책상 앞에 앉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우리는 좋은 공부
 습관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전이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알 수 있으며, 경전을
 통해 즐거운 삶의 기초를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리카 에이 아코스타 카릴로, 16세

멕시코

멕시코칼리 스테이크

나시오날리스타 와드

경전을 읽을 때는 읽고 있는
 부분을 영화로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구세주께서 산상
 수훈을 가르치신다든가, 모로나이
 대장이 그의 군대를 지휘한다든가
 하는 장면을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상상해 봅니다.

저는 경전 학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말은 곧
 표준 경전을 읽고 또 읽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낱말이 나오면 사전을 찾아봅니다.

크리스티아 라미레스 18세

도미니카 공화국

바라호나 지방부,

바라호나 바테이 지방부

저는 주제별로 특정한 색깔을
 칠하여, 경전을 색깔별로 구분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전에서 영감이 가득한
 말씀이 나오면 그것을 카드에 적어
 두고 보관하면서 약간의 도움이나
 위안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봅니다.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경전과 더욱
 가까와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끼 오카모토

일본

동경 동 스테이크

카마가야 와드

여러분이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 응답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을 1993년 1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U. S. A. 편지 안에

여러분의 성명, 나이, 도시 및

와드와 스테이크 명을 꼭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모국어로

쓴다면 그것은 번역되어 실릴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보내 주십시오. 돌려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편지가 아주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것이라면 여러분은 익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편지가 다

실리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담배와 술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번만 취해 보는 것도
 왜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는 그것들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술과 담배를
 접한다면 어떤 해로움이 있을까요? □

이노시의 책

셜린 마이크 손더스

그는 그 책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책을 읽음으로써 그의 가족의 삶이 변화되었다.

“선교사들이 싫으면, 그분들에게 싫다고 말씀하시면 돼요.”라고 마리안 나가 자매는 남편인 이노시에게 애원하였다. “그분들도 사람들이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마시라고요.”

이노시가 말일성도 선교사들을 처음 만난 지 거의 일 년쯤 됐을 때였다. 그 동안 마리안 자매는 남편이 선교사들과 약속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교사들에게 변명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마리안이 아무리 애원해도 이노시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선교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기술적으로 선교사들을 떨쳐 버릴 줄도 몰랐다.

피지 농업 장관의 개인 비서인 이노시 나가는 어느 날 점심 시간에 피지의 나우조리 거리를 걷다가 선교사들을 처음 만났다. 그는 선교사들이 주는 책을 받고 싶지 않았으나 선교사들이 계속 권하는 바람에 받아 들었다. “이 책은 금이 가득한 책입니다.”라고 선교사들이 말했다. 선교사들이 그와 약속을 만들려고 하자, 이노시는 그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으며—사실은 근처에 살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너무 바빠 만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우연히 만나 같이 걷다가 몰래 빠져나가 버린 처남을 선교사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2주 후에 이노시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그 두

선교사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의 처남이 선교사들에게 이노시의 집 주소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이노시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도록 선교사들에게 권하기는 했지만, 내심으로는 “제발 가라, 제발 가.”라고 하고 있었다고 회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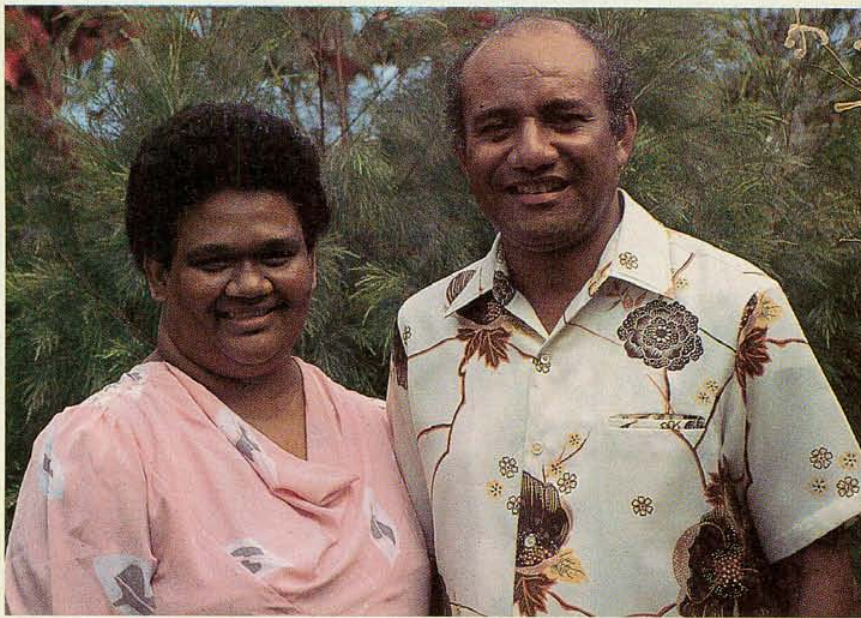
그 후부터 선교사들은 정기적으로 찾아왔다. 선교사들이 온다는 것을 아는 날 밤만 되면 이노시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선교사들이 떠난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귀가하였다.

이노시는 자신의 태도가 변한 것은 1974년 4월부터였다고 회고한다. 마리안이 사내 아기를 출산했으나 그 아기가 단 하루만에 숨졌을 때였다. 아들을 잃은 이노시는 그제서야 하나님과 종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두 명의 선교사들이 6월 둘째 주에 집에 왔을 때, 이노시는 이미 그들의 가르침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가족이 선교사들을 만난 지 일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안 장로들 가운데 한 명이 이노시의 가족들에게 침례를 받도록 권유했다.

이노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마리안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이번에도 남편이 예전처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어요.”라고 마리안은





나가 형제는 피지의 세미나리 책임자로 일하기 위해 공직을 떠났다. 그때부터 그는 스테이크 부장과 교회 교육 기구 지역 부대표로 봉사하였다. 내가 자매는 초등학교 회장이다. 그들은 자신의 부름에 대하여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

말한다. “하지만 직접 남편에게 물어 보면서 저는 남편의 표정에서 그 말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리안은 떨 듯이 기뻐했다. “저는 침례를 받는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라고 마리안은 회고한다.

그 주 내내 선교사들이 나가 가족들을 가르쳤으며, 이노시와 마리안 부부는 1974년 6월 14일에 침례받았다.

나가 가족이 교회에 들어온 직후에 지부장은 그 가족에게 성전에 갈 것을 권유했다.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지부장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라고 나가 형제는 그때를 회고하며 말한다.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진실임에 틀림없어. 이 분의 간증이 내 마음에 너무나 가까이 와닿고 있어.”

마리안과 이노시는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저축해 놓은 돈이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행하는 데 드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는가? 이들 부부는 소고기와 코코아와 마일로우(곡물로 만든 음료)를 그만 먹고, 벨레(시금치 비슷한 채소)와 생선 통조림과 레몬즙 차를 먹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음식에서 절약한 돈을 따로 떼어 성전에 가는 경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어린 네 딸에게 그러한 계획을 이야기하자, “아이들은 그 계획에 적극 동의했습니다.”라고 나가 형제는 회고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저희에게 저희의 목표를 계속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무렵 이노시 가족은 수바로 이사했다. 나우조리에서는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 숙소에 살았었지만, 새집에는 가구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닥에 자리를 깔고, 그곳에서 잠도 자고 식사도 했다. 몇몇 친구들과 집안 사람들은 이들을 비웃었다. “그들은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좋은 가구를 놓고 살 만큼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나가 형제는 말한다. “그러나 저희는 성전 여행을 위해 저축하기를 원했지요.”

1976년 10월, 교회 교육 기구 대표들이 이노시에게 피지의 세미나리 책임자로 일할 것을 권했다. 이노시는 그 직책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두고 망설이다가 피지의 교회 교육 기구 대표인 조세프 소키아 형제가 그에게 “만일 세미나리 책임자가 되시면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라고 한 말을 들은 뒤에야 받아들였다.

이노시는 그 말에 감동하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방부장이 언젠가 접견 중에 만일 교회가 필요로 하면 교회를 위해 온 시간을 바쳐 기꺼이 일할 수 있겠느냐고 물은 것을 기억했다. 당시 이노시는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가 온 것이다.

12년간 몸담아 왔던 공무원 직을 떠나기란 그리 쉬운게 아니었다. 이노시는 연금과 정부 혜택 및 해외 여행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저는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이노시는 말한다. 이노시의 몇몇 집안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결심을 한사코 만류하였다. 이들은 이노시가 공직에 있다는 것을

나가 가족은 그들이 복음 원리를 적용할 때 가족으로서의 힘을 발견한다. 왼쪽부터 : 에밀리, 케레시, 빌리마이나, 마리안 나가 자매와 이노시 나가 형제 앞 : 이노시와 레우아 (브리감 영 대학교 - 하와이 캠퍼스-에 다니고 있는 안나는 사진에 나오지 않았다.)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리안은 남편을 지지했으며, “당신이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시든, 저희는 당신을 따르겠어요.”라고 말했다.

이노시는 사직하면서 퇴직금을 신청하였다. 남편이 새로운 업무 관계로 자주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마리안도 사직하고 퇴직금을 신청해 받았다. 이들 부부가 이미 저축해 둔 돈에다 그 퇴직금을 합하자, 네 딸을 데리고 성전으로 갈 수 있는 돈이 되었다.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제 주머니에는 뉴질랜드 달러로 102달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진 전 재산이었지요. 저희는 뉴질랜드에 머무르는 2주 동안 어떻게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라고 나가 형제는 말한다.

그러나 교회 회원들이 공항에서 나가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회원 가정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고, 음식과 교통편도 제공해 주었다.

“성전에서 돌아온 뒤에 주님은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라고 나가 형제는 말한다. “가구를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을 증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1983년 6월 12일에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는 피지 수바 스테이크를 세우고 초대 스테이크 부장에 이노시를 불렀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그 부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노시는 말한다. “그러나 저는 이 섬에서 저희 형제 자매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큰 특권이며 축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가 부장은 교회 교육 기구 지역 부대표로 부름받았다. 그가 자신은 그 직책에서 잘 봉사할 수 있을 만큼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런 자질도 없다고 생각하여 사양하자, 관리자인 로버트 페링톤 형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오늘 새벽 네 시경에 형제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가 부장은 아내와 상의하기 위해 집으로 갔다. 얼마 동안 이들 부부가 기도하고 난 뒤에, 마리안은 이렇게 말했다. “페링톤 형제님에게 가서서 만일 회원들이 원하면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나가 부장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 “주님이 어떤 직책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그 부름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9년이 지난 지금, 이노시 나가는 피지와 뉴칼레도니아와 바누아투와 투발루의 교회 교육 기구를 관리하고 있다. 그는 최근에 스테이크 부장에서 해임되었으며, 현재는 피지 교회의 공보 책임자를 맡고 있다. 마리안은 와드의 초등학교 회장이며 나가의 여섯 자녀(안나, 22세; 에밀리, 20세; 케레시, 18세; 빌리마이나, 15세; 레우아, 13세; 이노시, 9세)들은 복음이 가정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을 보며 성장하고 있다.

이노시 나가가 선교사들로부터 그 책을 받은 지 불과 몇 년 내에 그와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 책은 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던 장로들의 말이 옳았던 것이다. □

제2회 국제 예술 경연 대회

글렌 엠 레오나드

전세계의 말일성도 예술가들은 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이 주최하는 제2회 국제 예술 경연 대회에 출품할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경전에 대한 그들의 이해력을 심분 활용하였다.(성도의 벗, 1992년 2월호 참조) “경전에서 얻은 주제들”이라는 이름 아래 열린 전시회에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나 개념에 기반을 둔 그림과 조각, 자수 및 도예품들로 구성된 이백여점이 넘는 작품이 선을 보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술가들이 조각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전의 내용을 표현한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림: 글렌 엠 레오나드

선한 목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방부, 보고르 지부의 수타리오노가 만든 채색 목각 작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요한복음 10:14)



여왕 에스더
뉴욕 주 팔마이라
로체스터 스테이크,
페어포트 와드의 로저
더블류 오더스가 만든
단풍나무 조각품:
“에스더는 우리에게
여성들도 훌륭하게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에스더 2~10장 참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아이다호 주 보이즈 동 스테이크, 보이즈 제25와드의 존 에이 타에가 만든 참피나무 조각품: “모든 사물에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씨앗은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나타내며, 열매는 성숙한 발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개골은 필멸의 세상과 죽음을 나타내며, 아름다운 휘장은 이러한 개념들을 하나로 묶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도서 3:1~2 참조)

니파이인들의 마지막 전쟁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빅터 데 라 토레가 만든 목재 조각품: “이 작품은 니파이인들의 예언자였던 몰몬과 그의 아들 모로나에게 바치는 것으로 안쪽 면에는 구모라 언덕 근처에서 레이맨인들과 니파이인들 사이에 벌어졌던 마지막 전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몰몬서 8:2~4 참조)





**“너희는 이렇게
침례하라”**

오레곤 주 코바리스
스테이크, 왈드포트
와드의 웨인 타이섬이
만든 돌 조각품: “저는
어린 소녀가 침례의
물가에서 나올 때
느껴지는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조각품 위쪽 부분에
있는 원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성령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역
마가복음 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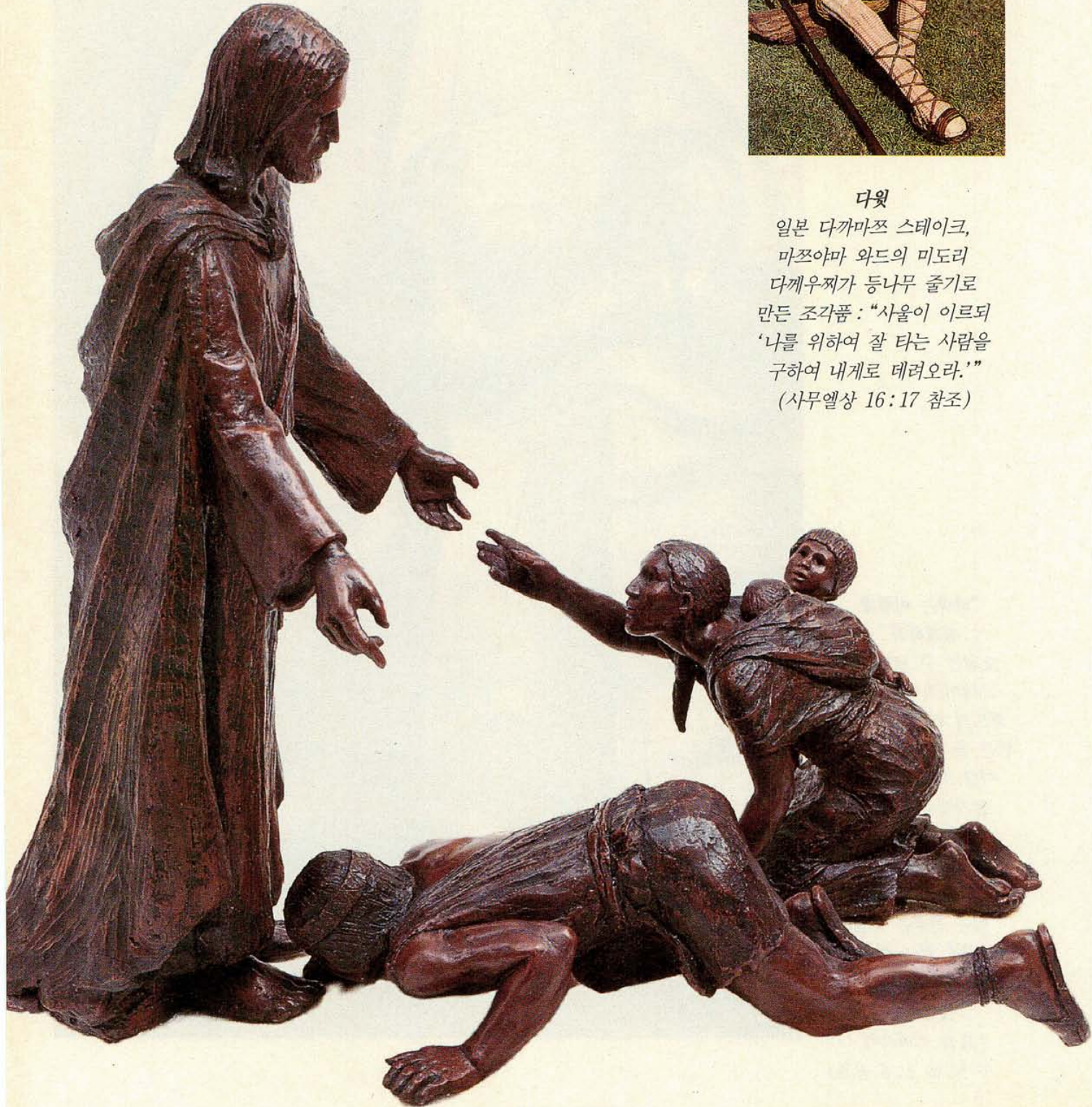
다른 양들을 방문하신 주님

콜롬비아 보고타 스테이크, 노르테 와드의 크리스타 크리스티안스 데 사티사바가 만든 채색 칠흙 조각:
 “저는 콜롬비아 사람들에게 이들이 이스라엘 권속의 잔류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보고타에 세워질 기념물의 모델로 이 작품을 구상하였습니다.”
 (니파이삼서 17:10 참조)



다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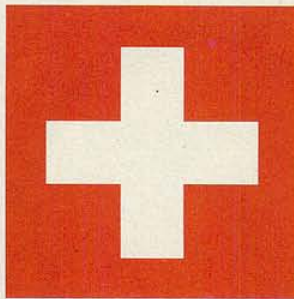
일본 다카마쯔 스테이크, 마쯔야마 와드의 미도리 다케우찌가 등나무 줄기로 만든 조각품: “사울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사무엘상 16:17 참조)





최후의 만찬

독일 함부르크 스테이크, 브레멘 제1와드의 끼르런데 끼셀, 브리지테 히르스텔
세글린데 노박, 잉케트라우트 리메르, 일세 셀마라야, 로세마리 트로체 등 여섯 여성으로
구성된 “브레멘 도예 2급” 이 만든 자기 및 토기 조각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마태복음 26:20, 26 참조)



제네바 - 하나됨과 다양성

페트리아 켈리

“제네바는 세계의 네 귀퉁이가 만나는 곳입니다.”라고 스위스의 이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는 마이크 캐넌은 말한다. 내 생각에도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네 귀퉁이가 있다면 그것들이 제네바에서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제네바에는 국제 연합과 세계 보건 기구의 유럽 지역 본부가 있으며, 또한 국제 적십자사와 250여개가 넘는 다른 국제 기구의 본부가 있는 곳이다. 매주마다 새로운 평화 회담이 이곳에서 열리는 것 같은 생각들이 정도다. 오래 전인 1600년대에는 제네바가 종교

개혁의 요람이었으며, 그 이후로 박해받는 사람들과 탄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왔다.

거리를 걸을 때면 프랑스어와 영어, 아랍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스페인어, 그리고 다른 많은 언어로 말하는 모습과 그 많은

.....
오른쪽 : 제네바호의 가장자리에 있는 제포에서 밤낮없이 솟구치는 140미터 높이의 물기둥이 보여 주는 장관은 이곳 주민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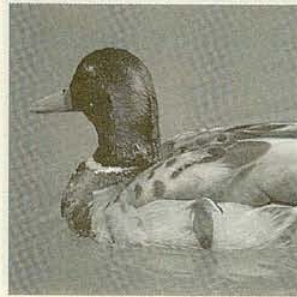
왼쪽: 마리오 치에사와 마리아 치에사는 이탈리아에서 왔다. 마리오는 제네바 라크 워드의 감독이다. 위: 로돌프 구스만과 마릴린 구스만은 필리핀 출신으로서 기상학자인 로돌프는 “햇빛을 비추어야 하는 책임”에 대해 농담을 즐겨 한다. 아래: 중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헬렌 아체인은 선교 도구로서 교회 잡지를 활용하고 있다.

언어로 된 간판을 볼 수 있다.

제네바는 쥐라 산맥과 제네바 호수 서쪽 연안에 있는 프랑스 알프스 산맥으로 인해 생긴 계곡에 위치해 있다. 그 유명한 제도(분수)가 창공을 향해 140미터나 내뿜어질 때면 장미와 연한 색깔의 돛단배들이 햇빛 속에서 찬란하게 빛난다.

루이스 카사이가 32번지의 한 건물에 있는 세 개의 말일성도 와드는 이 도시가 지닌 국제성과 교회가 지니고 있는 국제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네바의 와드들은 그 다양성으로 인해 잘 알려져 있었기에 나는 제네바로 와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나는 복음이 전세계로 퍼져감에 따라 생기는 다양성으로 인해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점들과 그 이면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이곳에서 모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네바 쥐라 와드의 카알 스타플러 감독은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모두 색다른 많은 언어와 배경을 지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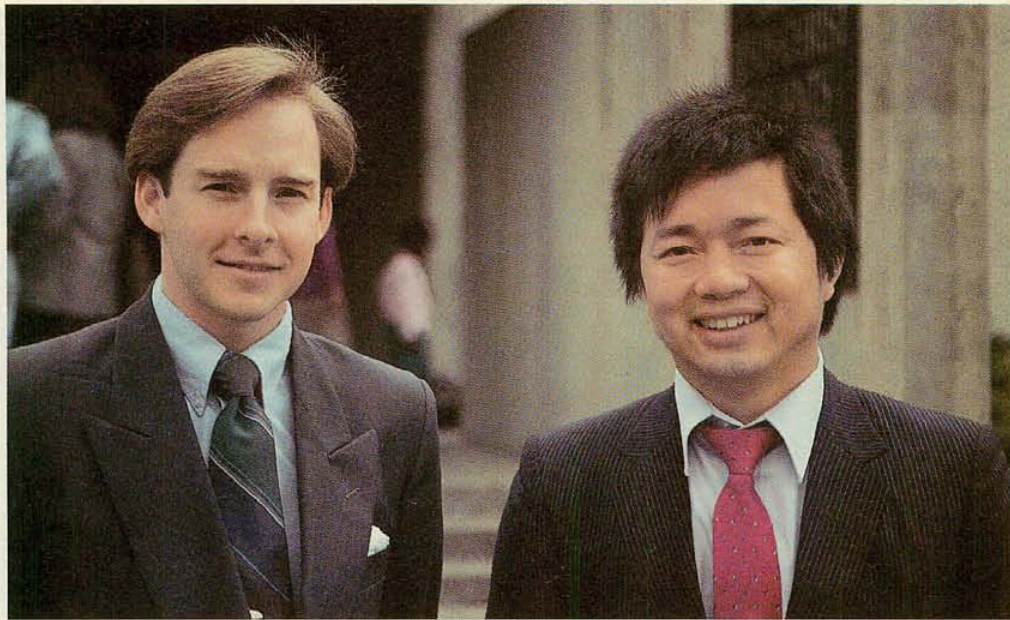
있지만, 복음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말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온 아담 토고라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형제는 휴가를 즐기기 위해 제네바에 와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받아들여 침례를 받았으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내 곁에는 평생을 교회 회원으로 살아온 미국 출신의 브르스 쿤드센 형제와 아르디스 쿤드센 자매가 앉아 있었는데, 이들은 제네바에 오기 전에 세계 보건기구 일로 인해 나이제리아와 트리니다드, 그리고 바베이도스에서 살았었다. 뒤에 앉아 있는 회원은 구스만 자매로 여섯 자녀를 데리고 와 있었다. 감독단의 일원인 데 구스만 형제는 연단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필리핀 출신이나 8년째 제네바에 살고 있는 중이었다.

또한 내 옆에는 25년간을 교회





위 : 미국에서 와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인 스티브 발드리지와 필먼드 리는 제네바에서 국제 연수생으로 있으며 이중 필먼드는 교회에 대해 공부 중이다. 아래 : 제랄딘 체발리는 에쿠아도르 출신이다. 오른쪽 : 피에르 보니와 그의 아내인 벨리 보니(중앙), 그리고 이들의 딸인 파말라와 멜라니 이 두 사람은 물론 5세대이다.

회원으로 살아온 품위 있는 스위스 자매인 라이네 페르트 자매가 앉아 있었다.

워드 서기 일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롤랜드 크루처 형제는 바로 여섯 달 전에 교회 회원이 된 사람이다.

가까운 앞줄에는 젊고 사랑스러운 멜라니 보니 자매와 파말라 보니 자매가 있었는데 이들은 5세대 딸일성도로서 이들의 선조들은 스위스의 초기 개종자들이었다.

세 워드의 감독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네바에 있는 교회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을 확연히 볼 수 있다. 그들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필리핀, 캐나다, 스위스 출신들이며, 세 워드의 회원들은 유럽 전역 뿐만 아니라 페루, 칠레, 나이지리아, 이란, 이디오피아, 타히티, 네팔과 기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 회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워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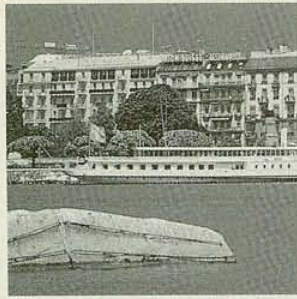
활동을 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음식들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고, 환상적인 세계 여행도 하고, 여러 나라 언어로 노변의 모임을 가질 수도 있다. 모든 언어와 문화적인 집단들이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스테플러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 성도들은 자신의 온 마음을 나누어 주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들이 많은 일들로 인해 너무 바빠 살지 않도록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어 이해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교회에서 경건을 보이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경건한 예배 분위기를 지니고 싶어합니다.”라고 다른 회원이 설명한다.

스리랑카 출신의 라자 페레라 같은 회원은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다.





왼쪽 :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의 사옥들이 제네바 호수 연안을 따라 줄지어 들어서 있다.

중앙 : 스위스 출신의 라이네 페오토는 25년간을 교회 회원으로 살아왔다.

오른쪽 : 제네바 호수에서의 뱃놀이

페레라는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몰몬경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간증을 강화시켜 준 자신의 가정 복음 교사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다. 가이 유노드와 타레바 유노드 부부와 같은 가족들은 오래된 회원들로서, 특히 유노드 부부의 네 자녀는 모두 선교사로 봉사했다. 내가 그들의 집을 방문하던 날, 스테이크 축복사인 유노드 형제는 터어키인 구도자를 위해 통역을 해줄 사람을 찾았다고 선교사들에게 이야기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교회 회원들이 지니고 있는 큰 축복중의 하나는 20개 언어로 발행되고 있는 교회 잡지이다. “모국어로 잡지를 읽을 때면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언자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한 형제는 말한다. 헬렌 아체인 자매는 교회 잡지가 훌륭한 선교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매년 친구들에게 교회 잡지를 1년분씩 정기 구독시켜 주고 있는데 그 중 한 친구는 이미 교회에 들어왔으며, 또한 친구는 선교사와 공부중이고, 다른 한 친구는 아직까지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계속적으로 잡지를 구독하고 있다. 코린 가족 또한 친구들에게 교회 잡지를 구독시켜 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친구들이 교회에 참석할 만큼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교회 건물 입구에 프랑스어로 적혀 있는 한 기념판에 호기심이 생겼다. 거기에는 제네바 교회 약사가 적혀 있는 듯했다. 나는 다른 경로를 통해 이곳에 처음으로 도착한 선교사가 토마스 비 에이치 스텐하우스 장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텐하우스

장로는 로렌조 스노우 장로와 함께 이탈리아까지 동행하였으며, 알프스 산맥을 넘어 제네바로 와서 1850년 12월에 복음 전도를 시작하였다. 1851년 2월에 스노우 장로가 도착하여 스위스를 복음 전도 지역으로 헌납하였다. 첫번째 개종자 침례식이 3월에 있었으며, 연말에는 제네바에 20명의 회원이 있었으며 1852년 5월에 지부가 조직되었다.

그후로 교회는 핍박과 박해, 그리고 간헐적인 폭동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갔으나 스위스에 남았던 몇몇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성장의 기반을 만들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다른 나라로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교회에 가입한 후에 제네바에서 와드를 강화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교회에서의 경험과 연륜의 차이와 같은 여러 가지 차이점을 통해 오는 다양성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보는 동안 그곳에는 서로 하나가 된 분위기가 가득 차 있었다. 우리들은 구세주에 대한 간증과 몰몬경에 대한 사랑 및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나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차이점들이 녹아 내리는 것을 느꼈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음식에 대한 기호와 옷차림 등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네 귀통이가 만나는 곳에 와 있었고, 또한 그곳에서 내 형제와 자매들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



신대륙에 도착한 리하이와 그의 가족, 클라크 켈리 포리스 그림

신대륙에 도착하고 있다. "여러 날을 항해한 후에 우리 일행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으니"(나파이일서 18:23)
클로리아 헤라스의 허가를 얻어 게재함.



“저는 여름 내내
하루에 세 차례씩
로데오 대회에서 말을
타는 일은 참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교 사업을
하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로데오 경기의
우승자인 제인
데이비스는 말한다.
“숙련되도록 배움”,
10쪽.



ELDER DAVIS

A IGREJA DE
JESUS CRISTO
DOS SANTOS
DOS ÚLTIMOS
DIAS